

트럼프 “시진핑, 북한 문제 100% 협력 약속”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밝혀
제재완화 등 엇박자 잠재워
한반도 비핵화 공조 혼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일정을 마치고 1일 밤(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시 주석과의 업무만찬과 관련,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와 시 주석)는 북한과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잊지 마라. 우리는 그것(비핵화 관련 협상)을 6~7달 동안 하고 있다. 오랜 기간이 아니다” 라면서 “사람들은 지난 8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공을 들여왔고, 핵만 따진다면 20년 동안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임 정권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거론하며 비핵화 협상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는 미 조야의 회의를 반박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그는 북한에 대해 100% 나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재완화 등을 놓고 미·중간 엇박자가 감지됐던 가운데 무역전쟁 휴전과 맞물려 ‘중국 배후론’을 거둬들이고 대북 대응에서도 불협화음을 잠재우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일(현지시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재우면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부진과 관련,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북중 밀착을 경계한 것을 두고 무역 협상을 둘러싼 대중(對中) 압박용 성격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무역 갈등의 봉합을 통해 그 불똥이 비핵화 협상으로 튀는 상황을 방지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간 공조 전선에도 ‘혼풍’이 불지 주목된다.

앞서 백악관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성명에서 “(미 중 정상)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시 주석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으로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앞당기고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려면 당분간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제재 문제 등에서 중국의 이탈을 막는 데 당

분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미 양측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길 바란다”고 언급,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중국이 이를 토대로 중재 역할을 자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60〉 무원형

무원형(武元衡, 758-815)의 자는 백창이고 현 하남성 언사시에 해당하는 구지 사람이다. 당 현종때 변진 세력을 진압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815년 자객에게 암살당했다.

측천무후의 증질손(曾孫)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다. 783년 진사시험에 1등으로 합격해 화원현령이 되었다. 덕종이 그의 재주를 알아보고 비부원외랑으로 발탁했다. 뛰어난 일처리로 한 해에 세 번이나 승진해 우사낭중을 거쳐 804년 어사중승이 되었다. 어사중승은 관리 임용, 감찰 및 재판을 주관하는 요직이다. 805년 덕종이 승하하자 정월에 태자가 순종으로 즉위했다. 왕숙문, 왕비 등 태자파가 황제의 측근이 되어 개혁 정치를 펴니 영정형신이다. 보수파와

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황제는 대신할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자 그를 동평장사로 삼고 서전절도사에 충임하였다.

813년 지정사로 임명되어 중앙에 복귀했다. 현종은 이길보를 수석재상에 이강을 차석재상으로 기용했는데 둘은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그는 어느 한쪽에 충직하고 온후하게 대우한다고 칭찬을 받았다. 왕숙문 일파인 영주사마 유종원을 광서성 유주자사로 낭주사마 유의석을 귀주성 파주자사로 번방에 내쳤다. 815년 회서절도사 오원제에 대한 정벌이 시작되었다. 부친 오소성이 죽자 조정에 알리지 않고 절도사직을 계승하려 하였다. 황제는 그에게 회서 채주의 반란을 평정하라고 명하였다. 진해 이길보가 갑자기 병사하자 군권을 그에게 일임하였다. 오원제와 공모했던 성덕절도사 왕승종과 처형절도

변진 세력 진압 공신, 자객에 피살

환관 세력과 국정 운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건강이 악화하자 8월 태자 이순에게 황위를 넘기니 현종이다. 그는 왕숙문의 봉당 가입을 거절해 사이가 틀어졌다. 결국 태자우서자로 밀려났다. 왕숙문 일파인 유우석은 판관이 되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현종은 806년 원화개혁에 착수했다. 신인 하던 무원형을 어사중승과 호부시랑으로 윤조경을 보내 이사도를 변호하였는데 그가 질책하였다.

6월 날이 밝기 전에 조현하기 위해 정안방 관저에서 나와 이동 중 동문 근처에서 도적이 갑자기 나와 그를 죽이고 두개골을 잘라 도망쳤다. 배도 역시 암살을 시도했으나 도랑에 떨어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도적은 글을 남겨 말하기를 “급히 나를 체포하려고 하지 마라.” 어사중승 배도를 재상으로 기용해 도적의 무리를 잡고 변진 세력 진압에 박차를 가했다. 도적 왕사원 등 16명을 잡아 국문하고 처형하였다. 그는 자신이 암살당하기 전날 밤 하야작 호령하시겠습니까?” 이에 황제가 조서(夏夜作)이라는 시를 지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였다.

암살 당한 후 사도의 지위를 받았다. 임회집 10권이 있지만 모두 없어졌다. 시인 백거이와는 죽마고우였지만 연적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품위있고 온화한 풍모를 지닌 인물로 평가되었다.

폭력 사태로 변진 ‘노란조끼’ 시위...프랑스 정부 비상사태 선포 검토

방화·상점 약탈 3주째 과격 시위
마크롱 대통령 불관용 원칙 천명

상젤리제 거리 등 파리 중심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격화해 폭력 사태로 변질, 프랑스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일 오전(현지시간) 개선문과 상젤리제 거리의 시위 현장을 둘러보고 경찰관과 소방대를 격려한 뒤 총리·내무장관 등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은 내무장관에게는 ‘불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 추가 폭력시위에 대비해 주요 도시의 경비를 대폭 강화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시위가 3주째 파리를 중심으로 이어지자 진압을 위해 ‘비상사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상젤리제와 에투알 개선문 등 파리 최대 변화가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 시위는 오후 들어 일부 북면을 쓴 무리가 급속으로 된 막대기와 도끼 등을 들고 거리로 나서 차량과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 사태로 변질했다.

이날 시위에는 3만6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프랑스 내무부가 밝혔다. 이런 규모는 첫 주말 11만3000 명과 두 번째 주말 5만3000 명보다 줄어들었지만, 과격 시위대의 방화로 19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6개 건물이 불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 문화재 전문가가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투알 개선문에서 전날 ‘노란 조끼’ 시위대가 쓴 낙서 ‘마크롱 퇴진’을 지우고 있다.

파리에서만 400여명이 연행되고, 11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노란 조끼’라는 집회의 별칭은 운전자

가 사고를 대비해 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형광 노란 조끼를 집회 참가자들이 입고 나온 데서 붙여졌다.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서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